

## 명광선(丁光訓)의 사랑의 신학 - 인신칭의(因信稱義)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설충수 (송실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인신칭의(因信稱義) 문제에 대한 재고
- III. 인신칭의 약화(淡化)에 대한 논란
- IV. 인애칭의(因愛稱義)
- V. 인신칭의와 인애칭의의 관계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0.02>

---

• ABSTRACT •

---

From 'justification by faith' to 'justification by love' - on the theology  
of love of K.H.Ting

Prof. Seol, Choong Soo (Soongsil Univ.)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how to accept and develop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which is the core doctrine of the Reformation, in the East Asian culture during the early of 20<sup>th</sup> century as it commemorates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theology of love of K.H. Ting, a representative theologian out of Chinese theologians, as it delves into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from 'justification by faith' to 'justification by love.' This is the main agenda of Chinese Christianity at that period. During the Reformation period, Luther supported human justification that he was saved by faith, not by law against the idea of salvation by human merits by the medieval Roman Catholic church. As Christianity expanded into the world,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faith and unbelief was strengthened, and the emphasis on individual salvation made the character of social salvation lessened. With this condition, this research demonstrates how K.H. Ting developed his theology of love, especially the idea of 'justification by love.' as he was pursuing the unity of Christianity and communism during the period of 1930's when Chinese Christians joined into the anti-Japanese movement as they tried to be in solidarity with the materialists. This theology of love suggests a way of salvation that overcomes the theology that emphasizes only individual salvation, and that saves the whole nation and the world through love, that is, the way of the social salvation. Thus, this research examines what attitude Christianity should have in this contemporary world in terms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Key words:** K.H. Ting,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Love, the Change of Social Context

---

## I.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以信稱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sup>1)</sup>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당시 중세 천주교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 이를 바탕으로 한 면죄부를 판매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동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이나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랜 동안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했지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다.<sup>2)</sup> 이 때문에 종교개혁을 재평가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이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이런 신학적 고민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성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같은 한자문화권을 공유하는 중국기독교가 이 문제, 인신칭의(因信稱義)<sup>3)</sup>를 어떻게 수용하고 그들의 신학을 만들어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미래교회포럼은 2016년 12월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하면서 이신칭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5109&code=231111111&cp=du>(2018년2월8일), 그리고 고신총 67회 총회에서 일부 목사들은 고신교회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이신칭의에 대한 입장을 듣기를 청원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신칭의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37> (2018년2월8일)참조.

2) 성신형, “칭의에서 정의로-이신칭의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장신논단』 제50권 1호 (2018, 3), 225.

3) 일반적으로 한국기독교에서는 이신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중국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인신(因信)으로 고쳐 쓰고자 한다. 이신과 인신은 믿음을 수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인으로 볼 것이냐 등 논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이지만, 여기서선 이런 논쟁을 쟁점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믿음(信)에서 사랑(愛)으로 나아가는 중국신학, 특히 땡광선의 사랑의 신학에 기초한 인신칭의에 대한 논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기독교는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서방의 다양한 신학을 수용했다. 이렇게 소개된 신학들은 각기 문화와 사회의 변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수용과정을 만들어 내었다. 중국적 상황, 특히 20세기 30년대부터 기독교가 공산주의 세력과 연대해 항일운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적 상황에서 중국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유물론자를 끌어안고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했다. 이런 시대배경은 기독교가 서방신학으로 들어왔지만 다시금 중국적 옷을 갈아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50년대 신중국의 성립과 개혁개방 등 한 사회의 변동이 기독교신학사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서 인신칭의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점은 중국기독교 신학형성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광쑤(丁光訓)<sup>4)</sup>의 신학을 밝히는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사랑의 신학을 통해 인신칭의 논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인신칭의(因信稱義) 문제에 대한 재고

중국기독교의 신학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관건적인 일을 제시하자면 아마도 서양종교로서 색채를 벗어나 중국적인 기독교로 탈바꿈해야 하는 당위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독교는 역사적 경험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서양종교의 색채에서 벗어나 중국적인 기독교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논의되었다. 이런 중국적인 기독교로 변화하기 위해 서양색채의 기독교에 대한 지적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믿음과 불신에 의한 대립을 축으로 하는 신학에 대한 고찰이었다. 왕웨이판(汪维藩)<sup>5)</sup>은 이에 대해

4) 평광쑤(1915-2012)은 상해 성요한대학을 졸업하고 기독교청년회 간사 등을 역임하다 이후 유니온신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남경신학교 원장과 중국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전국정치협의회의 부주석 등을 역임하며 중국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교회에 처음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신학은 믿음과 불신을 대립시키는 것을 축으로 하는 신학이었다. 불신자를 외인으로 자기를 인민들 밖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교회 밖의 선과 악, 미와 추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사회와 역사의 전체적인 추세를 날마다 부패해 가고 구할 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체 역사, 사회와 인생에 관하여 천시하고, 혐오의 비판적 태도를 지니며,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면에서의 수양과 추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신학사상의 영향은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생, 사회, 역사, 현실, 민족, 인민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방임하는 태도를 갖게 하였다.”<sup>6)</sup>

사실 이런 믿음과 불신을 대립으로 하는 신학은 중국기독교협회 기관지인 『천풍(天風)』에서 50년대의 중국기독교신학사상 중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거론되면서 대중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믿음과 불신을 통해 사람을 구별하는 즉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한가족이라 여기고 이와 달리 기독교를 불신하는 사람들을 생각이 다르며 심지어 대립된다고 생각했다.<sup>7)</sup> 물론 이런 사고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방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무분별한 신도 증가에만 관심을 갖고 인신칭의와 천당지옥을 연결시켜 전도한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광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 5) 왕웨이판은 중국신학자이며 목회자로서 과거 문화대혁명 기간에 8년동안 공장에서 노동을 했으며 이후 개혁개방으로 남경대학 종교연구소에서 일하다 남경신학원이 복교되면서 교수로 활동하며 문자출판 등의 일에 종사했다.
  - 6) 汪維藩(왕웨이판), “要建立具有中國特色的神學,”(중국특색을 갖춘 신학을 세우자) 『中國宗教』(중국종교)(1997(2)), 29-30.
  - 7) 鄧福村(평푸춘), “當前中國基督教開展神學思想建設的現實意義,”(현재 중국기독교가 전개할 신학사상건설의 현실의의) 『思想與實踐2』(사상과 실천2)(上海: 中國基督教三自愛國運動委員會 中國基督教協會, 2005), 34-35.

“19세기, 20세기에 이르러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왔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급하게 중국인 신도들을 늘리기 위해, 인신칭의와 천당지옥을 연결시켜 전도하였다. 중국인의 대부분은 천당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수용하였으며, 인신칭의 복음은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인의에 바탕한 행위 여부를 묻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평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대중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지도 묻지 않으시며, 오직 생전에 주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만을 묻는 하나님으로 변질되고 말았다.”<sup>8)</sup>

이런 인신칭의의 교리는 도덕무용론을 고취시켰으며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을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분명 복음의 윤리도덕적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신학의 중요한 발단을 가져온 우야오종(吳耀宗)도 기독교의 인신칭의가 선행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기독교의 한 중요한 진리는 곧 인신칭의이다. 신약과 구약 모두 이 진리를 중시하며 바울도 특별히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 단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다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이런 단편적인 관점은 잘못이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행위와 어긋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애를 갖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sup>9)</sup>

인신칭의는 곧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도덕무용론을 주장하는 교리

8) 평광선(丁光訓), 『丁光訓文集』, 김중구역,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민중사, 1999), 409. 본 논문에서는 평광선의 신학을 중점적으로 다루기에 그의 대표저작인 중문『丁光訓文集』을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말 번역본을 사용하고자 한다.

9) 吳耀宗(우야오종), “向耶穌學習,”(예수에게서 배우자)『田家』(1956年第15期), 7.

로 변질되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은 기독교인과 기독교 국가는 어떤 짓이라도 해도 좋다고 허가하는 하나님이 된 것이다.<sup>10)</sup> 분명 인신칭의 교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왜곡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변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활동(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좋은 활동까지도)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시며, 그의 사랑은 다만 일부분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사실 이런 주장은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중국의 지식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신학에서 인신칭의 교리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이런 기독교신학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교리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중국의 신학자들은 인신칭의 문제에 대한 오해와 폐단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1)</sup> 이에 중국기독교 특히 신중국 성립과 함께 해온 삼자교회를 대표하는 우야오종과 명광선이 어떻게 인신칭의를 이해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야오종은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신칭의를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그는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因真理得自由)는 글에서 진리에는 물질세계의 진리와 영적세계의 진리가 있다고 보았다. 전자는 과학적으로 이해된 진리 때문에 물질세계에서 더욱더 많은 자유를 얻으며, 후자에는 독특한 자연법칙이 있어 만약 영적세계의 자연법칙을 알지 못하거나 위배한다면 아무리 신체가 자유로워도 그 영성은 자유롭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예수가 말한 진리는 영적세계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10) 명광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9.

11) 王光輝(왕광후이), “從淡化‘因信稱義’看神學思想的調整,”(인신칭의 약화에서 본 신학 사상의 조정), 『金陵神學志』(금릉신학지)(2003年第1期)

자유도 이와 같이 사상과 영적영역의 자유를 의미했다. 그는 또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앙 속에서의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행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여겼다.

“예수 교훈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즉 어떤 사정을 볼 때 단지 그 표면만을 보지 않고 그 실제도 본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단지 그의 말만을 듣지 않고 그의 행위도 본다. 단지 그가 뭘 믿는지 묻지 않고 그의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본다”<sup>12)</sup>

우야오종의 입장에서 보면,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신칭의와 결코 모순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예수는 결코 우리들에게 신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들이 행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sup>13)</sup>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한 행위는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그의 주장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있건 없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4)</sup>

평광순은 인신칭의에 대해, 바울이 예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신약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신칭의를 주장했다고 했다.

“기독교의 처음은 단지 유대교의 한 유파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이외에는 여전히 할례를 행하는 등 유대교의 율법

12) 吳耀宗(우야오종), “因真理得自由,”(진리로 자유를 얻는다), 『天風』(천풍)(1954年第1, 2期), 4.

13) 위의 논문, 5.

14) 吳耀宗, “因真理得自由”(續), 『天風』(1954年第7期), 5.

규정을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가 아직도 유대교의 민족적 편협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인신칭의의 교리를 제기하면서 소리 높여 외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교의에 반대하고, 기독교로 하여금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교의적으로 지중해 주위의 각 민족들이 가질 공통 신앙으로 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sup>15)</sup>

바울이 말한 인신칭의는 바리새파들의 할례나, 안식일법 아래에 규정된 과도한 비인도주의적 잡다한 규정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함으로써,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교라는 닫혀진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중해 일대의 유대인지구 바깥의 이방으로 확산되게 하는 하나의 세계 종교로 탈바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바로 인신칭의를 통해 신학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 것이다. 평광원은 우야오중 선생이 바울의 신학에 확실하고 굳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 당시의 인신칭의의 제기는 결코 믿음과 불신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대립을 조화시키려는 구호였다고 주장했다.<sup>16)</sup> 이런 개방적인 구원관을 통해 모든 인간이 구속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광원은 당시 기독교가 인신칭의에 대해 오해와 변질의 해석으로 기우는 모습을 비판하며 이것은 이런 교의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았다. “만일 우리가 하

15) 평광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444.

16) 위의 책, 640.

나의 교의만을 믿고 따른다면, 이 교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의가 처음 말해지던 때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곧 신/불신의 모순 관계로 빠지게 되고, 백성의 단결을 해치며, 끝없는 분열을 일으킬 것이니,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무슨 증거를 할 수 있겠는가?<sup>17)</sup>

물론 평광선은 이런 인신칭의의 교리배경에 대해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은데, 반면 루터가 이를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부여를 가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단지 마틴 루터가 다시 인신칭의를 강조해 당시 로마 가톨릭의 계급제도와 면죄부의 판매 등으로 대중을 착취하는 것을 반대했음을 제기하며, 바울과 루터가 동일하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인간해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즉, “역사적으로 보건대, 바울과 마틴 루터 같은 선구자들이 인신칭의를 주창한 것은 모두 정의를 신장하고 종교 당국의 암흑세력에 반대하여 종교를 정화하고, 단순화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인신칭의는 본래부터 진보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에 인간해방의 기치였지, 결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sup>18)</sup>

이를 통해서 보면, 확실히 평광선은 인신칭의 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신칭의 교리가 가져온 믿음과 불신의 대립을 통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해 중국사회의 적대시를 불러일으킨 것이나 믿음만을 강조해 결국 도덕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장애라고 판단했다.

17) 위의 책, 413.

18) 위의 책, 408-409.

### III. 인신칭의 약화(淡化)에 대한 논란

이런 인신칭의 문제에 대한 재고는 인신칭의 문제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땡광원은 1996년 동북종교좌담회에서 발표한 “사상 깊은 곳의 문제를 논함”이란 제목의 글에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믿었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바는 윤리도덕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넓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결코 그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간을 지옥에 버리시는 이가 아니다.”<sup>19)</sup>고 했다. 최후의 심판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윤리도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이런 발언들은 인신칭의의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구원론의 논의에서 상당부분 인신칭의를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땡푸춘(鄧福村)은 이런 땡광원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약화는 결코 취소와 같지 않고 없애는 것과 같지 않으며, 약화의 반대는 강조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약화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약화를 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이 더 쉽게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임을 주장했다.<sup>20)</sup> 땡광원은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현실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독교의 사랑의 행동으로 중국 사회주의사회와 상호 결합시켜보려는 의도에서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이런 인신칭의 약화를 주장하는 것은 중국기독교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심

19) 위의 책, 412.

20) 鄧福村, “當前中國基督教開展神學思想建設的現實意義,” 39-40.

지어 이를 “불신파(不信派)”라고 지칭했다.<sup>21)</sup>

평광원(平光元)은 여러 글에서 인신칭의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 논했다. 특히 그는 믿음의 유무를 따지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천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며, 중국을 예로 들자면, 그의 관심은 결단코 수백만 기독교인들에게로 한정되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며, 다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그저 믿음과 믿지 않음의 문제에 대해 글줄이나 꼬적일 줄 알 뿐인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시다.”<sup>22)</sup> 바울의 신학에서 인신칭의는 중요한 교리이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고 한 것처럼 사랑을 통한 신학을 주장하고 있다. 평광원은 이런 사랑의 신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국기독교에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물론 그는 인애칭의를 통해 인신칭의를 대체하고자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루룽광(盧龍光) 목사는 “바울신관(保羅新觀)”에서 직접 평광원에게 이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루목사는 “당신이 이렇게 논하는 것은 책략적인 면에서 확실히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신칭의를 중시하기에 당신은 약화한다고 말하면 이건 좋지 못하다. 차라리 당신이 직접적으로 심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sup>23)</sup>고 했다. 물

21) 李信源(리신원엔), “一个‘不信派’的標本-《丁光訓文集》評析之一,”(한 불신파의 표본 - 《평광원문집》 평석)『生命季刊』(생명계간)總第14期(2000년6월).

22) 평광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02.

23) <http://www.gospeltimes.cn/index.php/portal/article/index/id/22031>(2017년 4월 20일) 루룽광 목사는 푸젠신학원(福建神學院)에서 “바울신관(保羅新觀)”이란 주제로

론 땡광원이 인신칭의 약화를 논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신칭의를 더 심화시키는 일인지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런 인신칭의 약화에 대해, 물론 땡광원이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기독교에서 회자되고 있는 “인애칭의” 즉 그의 사랑의 신학에 기초한 인신칭의 논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땡광원은 믿음과 불신의 대립으로 기독교가 더욱 변화하는 중국사회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사회를 결합시키고자 사랑을 주장했다.

#### IV. 인애칭의(因愛稱義)

땡광원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통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결합시키고자 했다. 그가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 속성이며, 다른 속성들은 사랑에 비하면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sup>24)</sup> 하나님을 사랑으로 온 우주에 거하시며 모든 현실의 중심이 되신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는 속성인가? 그것은 그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그러한 사랑이다. 고통과 십자가 앞에서 차마 버릴 수 없었던 그 사랑이요, 그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한 그 사랑이다.”<sup>25)</sup> 하나님에게는 많은 속성들이 있으며 이들 속성들은 곧 하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고 다른 속성들은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광대한 인간들의 무리 속으로 확대되어가면, 이것은 공의로움으로 변하게 된다. 즉 이 사랑이 세상으로 진입해 들어간 것이 공의이다.

---

바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장했다.

24) 땡광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72.

25) 위의 책, 98.

사랑은 결코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고침과 교육과 구속으로 이어지며, 생명을 가져다 준다.”<sup>26)</sup>

또한 평광선이 주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창조의 원인이며 하나님이 부단하게 창조하며 이 세계를 완성시키는 내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존재의 비밀을 벗겨내는 열쇠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창조를 진행하고, 교육을 행하며, 용서를 베풀고 구속을 베풀고 성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최후 목표는 바로 사랑의 우주, 사랑의 세계, 즉 그 안에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함을 원칙으로 하는 인류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길을 다지는 기계나 트랙터가 아니어서, 인간의 의지와 자유를 억압하거나 말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뜻이고 일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계시다. 삼위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것이다.”<sup>27)</sup>

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창조하는 원인이며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주를 운행하신다. 하나님을 우주적 사랑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랑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창조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이다.<sup>28)</sup>

평광선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 우주에 미쳤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드러난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즉 “그리스도는 전

---

26) 위의 책, 98.

27) 위의 책, 269.

28) 위의 책, 159.

우주를 주재하시고 관심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그리스도가 전우주를 다스리는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sup>29)</sup>는 그리스도의 우주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 우주에 미쳤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전우주를 주재하시고 관심하시고 돌보시는데 그의 관심은 종교, 영성, 교회, 신도 등의 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아직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심을 말한 것이다. “자기의 능력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히브리서1:3)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골로새서1:15,17) 이런 우주의 모든 만물에게 미치는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무궁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모든 창조에 참여하셨으며, 나아가 지금도 참여하고 계시다. 또한 앞으로도 이 창조를 영원무궁하게 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창조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과정에서의 필요조건으로 그리스도는 각지의 기독교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전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구속의 우주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우주를 다스리는 본질이 사랑인 것에 대해, 평광원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리스도가 이담의 범죄함에 비하면 더욱더 넘치는 은혜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한하고 주를 믿는 소수에게만 국한 된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비판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가 관심을 쏟는 것은 창조, 즉 구속, 교육, 그리고 성화를 통하여 인류를 온전하게 하여 창조의 참여자로 만드시며, 죄악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저급한 관심에서 벗어나 지혜로 가득 찬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다”<sup>30)</sup>고 했

---

29) 위의 책, 146.

30) 위의 책, 149.

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폭군이나 징벌자가 아니라 전우주에 대한 사랑이심을 깨닫게 된다.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계가 아직도 형성, 발전하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끊임없이 역사와 초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정하며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평광권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 속성으로 우주창조의 원인이 되며 세계를 창조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내재적인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전우주를 주재하시고 관심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그리스도가 전우주를 다스리는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으며(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계시자) 또한 창조와 구속이 서로 상반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곧 구세주이며 동시에 창조주임을 밝혀주는 근거(골로새서1:15-20)라고 보았다.

평광권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에는 그 동안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최고 속성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권능 즉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통치적 속성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신칭의의 교리도 일부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기형적인 하나님관을 가져와, 하나님은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징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활동에 대해 적의를 가지시며, 그의 사랑은 다만 일부분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다루었음을 지적했다.<sup>31)</sup>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신칭의 문제가 지닌 폐단에 대한 주목을 통해 평광권은 더욱 사랑을 통한 신학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31) 위의 책, 135.

특히 그는, “인간과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진리는 우리들이 지음받은 것은 우리들이 최후에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우리들은 모두 지금도 지음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랑과 연민을 갖는 존재이다.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은 우리들의 날이 황혼에 이르러 때, 우리들은 사랑을 갖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고 자처하지만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라고 하셨다.”<sup>32)</sup>고 주장한 것을 보면, 사랑에 의한 구원, 즉 인애칭의를 더욱 짙게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의 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땡광원은 우야오종의 사상을 계승해 이런 사랑의 신학을 논했는데, 먼저 우야오종이 사랑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는 2,30년대 중국사회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강렬한 사회책임감을 느꼈다. 이와 더불어 19세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빈곤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이상 개인구원의 신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에서 실천하려면 응당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한다는 외침에 공감하고 있었다.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즉 사회구원에 대해, 그는 “우리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 구원받은 개인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회도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더욱 믿게 되었다. 바로 사회에 구원이 없으면 개인도 결국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기독교가 사회구원 이 의미를 가장 전면에 놓고 이를 개인구원과 함께 기독교사업의 두 방면으로 삼지 않았기

---

32) 위의 책, 161.

때문에 오늘날 허점 투성이인 중국에서 기껏해야 자신 한 몸만 챙기는 집단으로 전락해 세상과 아무런 투쟁도 없고 남과도 거슬리지 않는다. 비록 지엽적으로 사회복지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혼란 속에 있는 국가에 대해 결코 어떤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수 없다. 중국의 기독교운동이 어떻게 사회구원의 중책을 짊어질 수 있는지 이것이 전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구 노력해 나가야 할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33)</sup>고 했다.

이런 사회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사랑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것은 먼저 행동의 원칙으로 사랑의 정신을 갖고 사회와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섬김과 같은 자세로 인간의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sup>34)</sup>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에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와 진리, 정의를 사랑하고 협력 단결시켜 전쟁과 억압, 거짓을 반대해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아름다운 일로 여겨 매진해 나가게 해야 한다.”<sup>35)</sup>

물론 우야오종이 이런 사랑을 논하게 된 이유는 그가 20년대부터 청년회 일을 할 때 당시 유물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청년들을 접촉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해야 할 과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유물론과 대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초월성보다 내재성, 임재성을 강조했으며 자연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평광순은 이 영향을 받아 특히 교회 밖의 무신론자를 포용하기 위해 사랑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33) 段琦(두안치), “吳耀宗實踐的神學,”(우야오종의 실천 신학)『基督教在中國』(중국에 서의 기독교)(宗教文化出版社, 2009),443에서 재인용함. 이 글은 본래 吳耀宗, “我們今日的使命,”(오늘날 우리들의 사명)『社會福音』(사회복음)(青年協會書局, 1934, 9), 136에 나와 있다.

34) 吳利明(우리밍), 『基督教與中國社會變遷』(기독교와 중국사회의 변천)(基督教文藝出版社, 1990), 81-2.

35) 吳耀宗, “向耶穌學習”, 7.

평광선은 무신론자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행동하는 무신론으로 주로 비도덕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실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의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만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허무주의와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사회개혁가나 혁명가로서 이들은 인도주의적 무신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유형을 기독교와 대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종교가 선전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단지 현상을 유지하는 존재이고, 사회구조와 가치체계의 개혁을 원치 않으며,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다. 하나님은 억압적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억압계급과 착취계급 편에 서있기 때문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은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sup>36)</sup> 바로 무신론자들이 지적하는 잘못된 하나님관에 대한 수정이 이들을 더 큰 틀에서 끌어안을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확실히 이들 무신론자는 인간을 강조해 그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자신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인간을 격려하고 고무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는 무신론자들을 평광선은 템플(William Temple)대주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에 의해 감동된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이들이다. 사랑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부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sup>37)</sup>

우야오종이나 평광선 모두 당시 시대상황의 변화에 기독교가 어떤 적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궁구하는 길에서 사랑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36) 평광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8-9.

37) 위의 책, 211.

사랑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연결시키는 고리이며 기독교와 사회주의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길이기도 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인신칭의의 고리를 갖고 믿음과 불신을 대립시켜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에게서 분리시키려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신자를 통해 공의와 자애를 실행할 수 있기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장벽을 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명광선은 샤르텔의 신학이나 과정신학 등의 영향을 받아 이런 논의를 펼칠 수 있는 배경도 되지만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논의는 기독교신학이 중국문화가치와 결합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중국전통문화에서 사랑(仁)은 핵심가치관념 가운데 하나이다. “인자애인(仁者爱人)”<sup>38)</sup>을 주장한 공자뿐만 아니라 맹자도 “爱人者, 人恒爱之 : 敬人者, 人恒敬之(애인자인항애지:경인자인항경지)”<sup>39)</sup>를 주장했다. 이와 같이 인애(仁愛)의 학문을 기초로 하는 중국전통문화에 기독교가 더 이상 이질적인 문화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문화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 토착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사랑이 이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 V. 인신칭의와 인애칭의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명광선의 사랑의 신학, 즉 인애칭의가 과연 바울과 루터가 논한 인신칭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중국기독교가 인신칭의를 어떤 식으로 수용, 발전시키며 중국적 특색을 만들어 가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먼저 우리는 바울과 루터의 인신칭의 논의에 서로 다른 배경이 있음을 확인할

38) 論語·顏淵篇』

39) 孟子·离婁下篇』에 나오는 글귀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는 뜻이다.

필요가 있다. 땡광원은 바울이 당시 인신칭의를 논한 배경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유대교의 바리새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바리새파들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각종 음식물을 율법에 따라 가려먹는 것 등 번잡한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신칭의의 교리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교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인신칭의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출발하였지만, 개방적인 구원관으로 세계종교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sup>40)</sup>

이에 기초해 인신칭의 논의의 핵심인 로마서1장16-17절을 보면<sup>41)</sup>, 바울의 관심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깨뜨리며 이들의 원한을 없애기를 바랐다. 인신칭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울의 선교적 관심에서 비롯된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은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신칭의의 함의가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도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한다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40) 땡광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518-9.

41)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1:16,17)

이다. 조건적 의미에서의 인신(因信)은 곧 칭의(稱義)로 나아가는 충분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1500년후의 루터는 당시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범람하는 시대로 교회세력이 팽창해 유럽사회의 정치, 경제와 사상 등을 통치하며 교황무오설과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또한 성직자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 문제를 일으켰던 시대에 살았다. 교회는 이미 바울에게서 제기된 인신칭의의 순수성을 잃고 교권주의를 드높이는 종교로 변질되었다. 루터는 인신칭의를 통해 그의 창 끝을 먼저 로마교황청의 권위 그리고 교황과 성직자의 특권, 교계제도와 면죄부의 기능에 겨누었다. 교회의 전통에 의해 이해되어온 것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면죄부를 중시하고 선행을 중시하는 당시 교회 전통에 반대해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더 높게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루터는 법률가로서 바울이 제기한 인신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즉 어떻게 하나님의 사면을 얻을 수 있는지를 궁구했다. 당시 유럽사회의 배경에서 루터뿐만 아니라 동시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었고 죽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구원론적 관심에서 루터는 성경만이, 믿음만이, 은총만이 이런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천주교 전통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루터의 인신(因信)은 유일성 또는 절대적 필요로 칭의(稱義)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이라 볼 수 있다.

바울이 인신칭의를 중시한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본 이상 바울의 관심은 개인의 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민족, 세계의 문제로 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건적

믿음, 즉 누구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한다면 의로워질 수 있거나 반대로 의로움을 얻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믿음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만이 아시는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이런 바울의 논의는 선교현장에서 사용될 때, 즉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한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며 더 이상 전달자가 가져오는 문화에 구속당할 필요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확실히 이 부분은 오랫동안 문화침략으로 인식된 중국에서의 서방선교방식과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반면 루터는 개인의 구원에 관심해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믿음은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루터 입장에서, 누구든 믿음이 없으면 의로워질 수 없거나 반대로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실히 바울에게는 방점이 칭의에 있다고 한다면 루터에게는 믿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루터 입장은 바울과 비교해 과연 믿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사실 이점은 기독교전통에서 무수한 논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바울의 시대와 루터의 시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런 다름 속에서 교회의 환경이 변화했으며 각기 시대적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땡광원은 바울과 루터가 모두 인신칭의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난 인간해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율법의 틀 안에서 구속된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칭의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상정하고 모든 인간의 구원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루터는 교회전통의 틀 속에서 개인의 영적체험을 중시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인 것이다. 칭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하지 않으며 교회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인간의 행위 또는 선행에도 의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잘못된 생각 즉 행위에 의해 칭의(justification)가 얻어진다는 어리석은 가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믿음은 우리의 양심(도덕심)을 회복시키고 교정하며 보존시키기에 우리는 칭의가 행위에 있지 않음을 안다.”<sup>42)</sup>

이런 이해에 기초해 보면, 평광선은 바울과 루터의 인신칭의에 대해 확실히 바울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합시키려는 의도에서 믿기만 하면 모두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평광선은 믿음과 불신의 대립을 조장하는 인신칭의를 약화시키고 신자와 불신자, 기독교와 사회주의사회를 결합시키기 위해 사랑을 주장한 면은 선교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인애칭의의 중요한 배경은 사회구성원의 분열이 아니라 단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의 믿음의 강조가 행위를 폐지하거나 개인중심에만 머물러 있다는 오해를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밝히는 것은 루터의 ‘믿음에 의한(인신)’ 논의가 상당부분 선행과 사랑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광선의 인애칭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루터에게서 믿음의 강조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거짓도리를 벗어나게 해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신의 몸을 절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선행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

42) Martin Luther, *Three Treatises* (Fortress press,1970), 311.

신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믿음에 의지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사랑에 의지해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 믿음으로(믿음에 의해) 그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품에 이르게 되며, 사랑에 의해 자신보다 낮게 이웃의 품에 이르게 된다. 그는 늘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머문다.<sup>44)</sup> 이를 통해서 보면, 루터는 선행이 믿음의 결실이며 사랑이 믿음의 증명임을 밝히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며 심지어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며 최소한 우선적인 것이어야 한다.”<sup>45)</sup>

이와 같이 루터의 인신칭의 논의에 믿음의 강조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선행이 따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기존의 믿음과 불신의 대립으로 인신칭의를 가르쳐온 모습과 달리 믿음과 행위의 일치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칭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의한 것으로 복음을 통해 인간에게 계시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에베소서2:8)임을 밝혀주고 있다. 이런 인신칭의적 관점에서 보면, 평광원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논의는 어느 정도 그 연속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로마서5장15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는 구절을 인용해 “더욱더”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강하며, 선물이 범죄보다 강하며, 은혜는 죄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sup>46)</sup> 아담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죄보다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은혜가

---

43) 何光瀕(허광후), “《基督徒의自由—馬丁-路德文選》序,” (《그리스도인의 자유-마틴 루터 문선》서) (<http://www.godoor.com/article/list.asp?id=1069>, 2017년4월25일)

44) Martin Luther, *Three Treatises*, 309.

45) 何光瀕, “《基督徒의自由—馬丁-路德文選》序”

46) 평광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60.

더 큼을 논한 것이다.

확실히 평광선은 믿음과 불신의 대립을 축으로 해 도덕무용론을 제기하는 인신칭의의 변질에 대해 우려했다. 믿으면 구원이란 수준 낮은 논의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을 다시 들여다봐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사랑은 인간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이 실제로 모든 우주와 현실과 존재의 배후에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동인이며, 궁극적인 원칙이며, 모든 근원의 배후를 이루는 으뜸가는 근원임을 아울러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sup>47)</sup>고 했다.

평광선이 논하고자 한 사랑은 바울이 논한 믿기만 하면, 루터가 논한 오직 믿음이 담고 있는 함의를 중국적 상황에서 적합하게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본다. 특히 중국은 행(실천)을 강조하는 민족으로 인애칭의에 담고 있는 행동으로 믿음을 체득하는 방식이 중국 전통문화에 뿌리내린 기독교신학을 만들어 내는 길이라고 본다. 이에 평광신도 “사랑은 우리들을 위하여 지극한 선을 찾아준다. 모든 선은 끝까지 소실되지 아니하며, 그들은 온전해지고 항상 되어져 사랑의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주재이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고 했다.<sup>48)</sup>

## VI. 나가는 말

평광선의 사랑의 신학에 기초한 인애칭의 논의는 사실 인신칭의의 반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루터에게서 조차 믿음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며 선행을 동반하는 것임을 알

47) 위의 책, 262.

48) 위의 책, 99.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땡광원이 주장한 사랑은 믿음의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와 일치로 가져오는 것이다.

사랑을 통한 칭의는 중국기독교가 사회주의사회 그리고 비기독교인과의 단결과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 또한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되기 위해 복음의 윤리적 차원을 강조한 상황적 결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인애칭의라는 서술 자체가 작위적인 냄새가 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신칭의의 폐단과 이에 대한 반성이 가져다 준 신학적 성찰은 중국상황에 부합하는 중국신학을 만들어가는 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전통의 인애를 강조하는 문화를 신학적 사고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중국사회의 변화에서 유물론자와 무신론자들과의 대화나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 모습에서 인애칭의는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땡광원의 사랑의 신학에 기초한 인신칭의에 대한 재고찰은 중국기독교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길인 사회주의사회에 부합하는 기독교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학사상의 상황화와 윤리화가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행함과 믿음의 통일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기독교신학은 개인구원만을 강조하는 신학을 극복하고 진정한 바울 신학이 논한 전체 민족, 세계를 구원하고자 한 사회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 속에 중국기독교가 걸어온 이 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명광선(丁光訓)/김종구역,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중사, 1999.
- 吳利明, 『基督教與中國社會變遷』, 基督教文藝出版社, 1990.
- 趙士林, 段琦 主編, 『基督教在中國：處境化的智慧』(下冊), 宗教文化出版社, 2009.
- 羅冠宗等著, 『思想與實踐2』, 上海：中國基督教三自愛國運動委員會、中國基督教協會, 2005.
- 吳耀宗, “我們今日的使命”, 『社會福音』, 青年協會書局, 1934.
- 吳耀宗, “向耶穌學習”, 『田家』(1956年第15期)
- 吳耀宗, “因真理得自由”, 『天風』(1954年第1, 2期)
- 吳耀宗, “因真理得自由”(續), 『天風』(1954年第7期)
- 王光輝, “從淡化‘因信稱義’看神學思想的調整”, 『金陵神學志』(2003年第1期)
- 汪維藩, “要建立具有中國特色的神學” 『中國宗教』(1997(2)).
- 李信源, “一个‘不信派’的標本-《丁光訓文集》評析之一” 『生命季刊』總第14期 (2000年6月)
- 何光滬, “《基督徒的自由——馬丁·路德文選》序”
- Martin Luther, *Three Treatises*, Fortress press, 1970.
- 성신형, “칭의에서 정의로-이신칭의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장신논단』Vol.50 No.1(2018.3)
- <http://news.kmbi.co.kr/article/view.asp?arcid=0923655109&code=23111111&cp=du>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37>
- <http://www.gospeltimes.cn/index.php/portal/article/index/id/22031>

논문투고일: 2018년 2월 28일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06일

---

• 국 문 초 록 •

---

이 논문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以信稱義)’에 대해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어떻게 수용, 발전시키는지를 궁구하는 목적을 지녔다. 특히 중국기독교의 대표신학자인 평광선의 사랑의 신학을 통해 이신칭의에서 인애칭의로 나아가는 변용과정이 당시 중국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과제를 안고 고민할 수 밖에 없었는지 밝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 천주교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루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지지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계로 확대되면서 믿음과 불신에 대한 구별은 강화되면서 개인중심 또는 비기독교인과의 지나친 차별만을 강조하면서 도리어 사회구원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동일한 문제였다. 특히 20세기 30년대 중국기독교가 공산주의 세력과 연대해 항일운동에 참여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물론자를 끌어안고 기독교를 변증해야 하는 시대상황하에서 평광선은 그의 사랑의 신학, 인애칭의를 통해 기독교와 사회주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단결과 일치를 추구하며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되기 위해 복음의 핵심가치인 사랑으로 이들을 흡수하고자 했다. 이런 사랑의 신학은 개인구원을 강조하는 신학을 극복하고 전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고자 한 사회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본다. 이점은 시대상황의 변화 속에 기독교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고찰케 하는 질문이라고 본다.

**주제어:** 평광선(丁光訓), 이신칭의, 인애칭의, 시대상황의 변화

---